

# 정조·순조연간 관영공사에서 別看役 丁遇泰의 조영활동

김 동 욱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주제어 : 감독관, 장인, 기술자, 무관, 건축기술

## 1. 머리글

丁遇泰는 사료에 기록된 것만으로 1779년부터 1809년까지 30년 동안 궁궐 주변에서 벌어진 각종 공역에서 別看役이라는 직책을 맡은 인물이다. 정우태는 왕실의 祭器 제작에서부터 왕릉조성, 궁궐건물 수리를 비롯해서 규장각 건물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일을 했으며 1794년에 있었던 華城 축성이나 한강의 배다리 설치에도 공을 세웠다. 정우태는 1789년 顯隆園 조성의 공을 인정받아 남포현감에 제수된 이후 근 20년 동안 충청도와 경기도 여러 곳의 현감을 지냈다. 현감으로 있으면서도 정기적으로 규장각 奉審을 했고 화성축성을 비롯한 각종 공사 현장에서 별간역 일을 수행했다.

별간역이라는 호칭은 18세기 중반, 영조 이후에 왕실 주변의 각종 공역 관련 사료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주로 새로운 기술적 창안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해서 일반장인

들에게 맡기기 어려운 일을 담당할 직책으로 보인다. 별간역은 일반 감독관과는 구분되는 존재이며 기술적인 문제를 직접 다루기도하고 감독하기도 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다. 18세기 중반 이후 영건의례, 산릉조성 관련 의례, 『日省錄』이나 『內閣日曆』에는 많은 별간역 관련 기록이 나온다. 그 가운데 정조에서 순조연간 사료에 나오는 정우태는 별간역 가운데도 그 활동이 두드러진 인물이다.

이 글은 정조·순조연간에 별간역으로 활동한 정우태에 대해서 의례 및 『일성록』을 비롯한 관련 사료를 통해서 그의 활동 이력을 정리하고, 건축관련 공사를 비롯한 그의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살펴본다. 별간역 정우태의 존재를 일깨우는 동시에 그의 별간역 활동이 조선시대 건축기술사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조선시대 관영 건축공사에 종사한 감독관에 대한 연구는 조선초기를 대상으로 감독관의 직책이나 역할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sup>1)</sup>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R01-2004-000-10150-0)

1) 조선초기 건축공사의 감독관이나 장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가 있다.

별간역이라는 존재를 비롯해서 정우태라는 개인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우태는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 관영 건축공사에서 독보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그가 맡은 별간역이라는 직책 역시 이 시기 건축공사 조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별간역 정우태의 조영 활동에 대한 고찰은 조선후기 건축기술사의 일면을 밝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론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장에서는 정우태의 이력과 그의 별간역 활동 전체를 정리하며 둘째 장은 18세기 중반 이후 나타나는 별간역의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셋째 장에서는 별간역 정우태의 기술자로써의 역할을 살피고 마지막 장에서는 정우태의 별간역 활동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를 논하기로 한다.

## 2. 정우태의 이력과 별간역 활동

『일성록』, 『내각일력』 등 조선시대 주요 관찬사료에는 별간역으로 활동한 정우태에 관한 많은 기사를 수록하고 있으며 그의 관직 이력도 부분적으로 나타나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의 문헌검색 창에서 정우태를 검색한 결과 그의 이력과 별간역 활동 내용의 상당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우태에 대한 검색결과에 의하면, 별간역으로 정우태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79년(정조3) 7월 정조후궁이던 仁淑元嬪宮의 魂宮을 조성하는 일이었으며 마지막으로 그의

申榮勳, 「太祖廟 漢陽城建設 監役官考」, 『郷土서울』 제43호, 1985

李廷國, 「麗末鮮初 監督과 大木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v.15 n.7(1999-07)

행적이 기록된 것은 1808년(순조9) 8월, 景慕宮 望廟樓의 건물상태를 살피본 일이다. 정우태는 사료 상에 무려 30년에 걸쳐 일관되게 별간역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온다.

한편 정우태는 1779년 기록에 閑良이라는 신분으로 표기되다가<sup>2)</sup> 곧 僉使, 嘉善이라는 호칭을 거쳐 1787년에 邊將에 제수되고 1790년에는 藍浦縣監이 되었다.<sup>3)</sup> 한량은 아직 무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며 첨사, 변장은 무관계 관직을 지칭하는 호칭이다. 이후 정우태는 포천현감, 용인현령, 직산현감, 옥구현감, 적성현감 등 주로 충청도와 경기도의 현감을 역임하였다. 현감이나 현령으로 있으면서도 정우태는 일년 중 여러 차례 창덕궁 내 규장각의 건물을 살피는 봉심에 참여하고 각종 왕릉의 수리나 건축물 조성공사에 별간역으로 일했다.

[표 1]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우태의 별간역 활동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로 정리해본 결과, 정우태의 별간역 활동은 크게 보아 세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아직 관직을 갖지 않은 채 별간역 활동을 한 시기로, 1779년부터 1789년 현릉원 천원까지 10년이다. 이 때까지 정우태는 정기적으로 규장각 건물과 어진 상태를 살피는 일을 하는 한편 어진의 배접 상태를 살피는 일(1781년), 종묘에 왕실 족보인 寶鑑을 살피는 일(1782년), 왕대비에 존호를 올릴 때 기물을 제작 감독하는 일(1783년), 문효세자 혼궁을 조성할 때 금속제 제기를 주조하는 일을 살피는 일(1784년) 등 주로 의례와 관련한 기물이나 초상화의 배접을 다루는 일을 맡았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정

2) 『日省錄』 정조3년 7월 3일

3) 『日省錄』 정조5년 9월 16일, 정조11년 2월 12일, 정조13년 10월 13일 및 정조14년 4월 27일

우태는 왕으로부터 크게 신임을 얻은 듯하여 1789년 정조가 오랜 숙원 끝에 실현하게 된 부친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는 顯隆園 遷園공사에 별간역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공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우태는 남포현감에 특별히 제수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789년부터 정조가 승하한 1800년까지이다. 이 기간은 정우태의 활동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때이다. 정조의 각별한 신임 아래 나라에서 행하는 거의 모든 공역에서 별간역으로 활동하였다. 주요한 일을 보면 1790년에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일을 주관하고 노량진의 船倉에 석축 쌓는 일, 1791년에 義陵의 석물수리를 맡고 御眞 後排를 주관했으며 1793년에는 노량행궁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1794년에는 華城城役に 별간역으로 임명되어 성역에 참여하였다. 이듬해에는 직산현감에 제수되었으나 화성에 가까운 곳으로 보내라는 왕의 명에 따라 포천현감을 거쳐 용인현령에 임명되었다. 정우태는 용인현령으로 있으면서 화성성역의 여러 공사를 주관하였다. 이 사이에도 함경도 永興本宮의 祭器 조성을 맡았으며 이듬해에는 현릉원의 석물을 살피고 제릉의 석물수리 공사를 맡았다. 또한 1795년 이후에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창덕궁 규장각의 건물을 살피는 일을 도맡았으며 왕이 현릉원에 전배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원의 석물 등을 살피는 일을 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801년부터 1809년까지 10년으로 정조가 승하하고 난 뒤 10년이였다. 1800년 6월 정조가 갑자기 승하한 후 정조의 무덤인 健陵 조성에서 돌공사를 맡고 1801년에는 정조의 影殿인 華寧殿 짓는 일을 주관했고 1802년에 정조의 3년상을 마치고 위패를 종묘에 봉안하는 일을 할 때도 제반 기물 제작 등을 주관하였다. 이후에도 화재로 사라진

仁政殿을 다시 짓는 공사(1803년) 외에 元陵, 康陵 등의 석물수리 공사를 도맡았다. 이 때에도 옥구현감, 적성현감, 고창현감 등 지방 현감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정기적인 규장각 봉심을 하였다.

한편 정우태는 생애 후반기에 와서 몇 차례 투옥되는 일을 겪었는데 현감이나 현령으로써 업무상의 과실이 이유였다. 그 첫 번째 일은 1797년 9월 경기감사가 용인현의 개인 무덤을 무단으로 점거한 일을 현령이 적절히 처리 못한 죄를 물은 일이었다.<sup>4)</sup> 사건이 큰 것이 아니었으므로 왕이 명을 내려 치죄하지는 않았다. 다시 1800년 3월에 역시 경기감사는 용인현령 정우태가 당연히 직급을 올려주는 加資를 해야 할 노인에게 가자하는 일을 보고하지 않은 죄를 물었다.<sup>5)</sup> 이 때도 혐의 없이 일이 끝났다. 같은 해 11월에도 경기도 암행어사가 업무상의 과실을 물어 의금부에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sup>6)</sup> 이 일에도 불구하고 1802년까지 정우태는 큰 벌을 받지는 않고 계속 현령 자리에 있었으며 1803년에 와서 잠시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1804년 인정전 영건으로 상을 받고 그 해 12월에 옥구현감에 나갔다.<sup>7)</sup> 그 후 다시 경기도 내 적성현감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면서 元陵 莎草修改의 별간역을 맡고 康陵의 陵上石物을 고치는 등 별간역 일을 계속했다. 이후 1808년 12월에는 고창현감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1809년 1월 10일 경기 암행어사가 정우태가 전에 용인현령으로 있을 때 軍保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죄를 물었고 결국 1월30일에 옥에 갇히게 되었다. 『일성록』

4) 『日省錄』 정조23년 8월 28일

5) 『日省錄』 정조24년 3월24일

6) 『日省錄』 순조즉위년 11월 14일

7) 『日省錄』 순조4년 12월 21일 및 22일

[표 1] 정우태의 별간역 활동(출전 『일성록』 및 『내각일력』)

연 도	관 직	별간역을 맡은 공사명(활동내용)	비 고
1779(정조3)	閑良	仁淑元嬪宮 殯宮 조성	
1781(정조5)	嘉善	御眞을 그리고 梢接하는 일을 看檢 규장각 봉심	
1782(정조6)	嘉善	규장각 봉심 종묘에 寶鑑을 봉안할 때 간검	
1783(정조7)	嘉儀	규장각 봉심 왕대비에 尊號를 올릴 때 기물제작 간검	
1784(정조8)	嘉善	尊崇都監에서 시상	
1786(정조10)		文孝世子 魂宮 조성시 祭器鑄成 간검	
1787(정조11)	邊將	綏嬪 嘉禮時 시상	
1789(정조13)	前僉使	顯隆園遷奉時 석물 조성 주관	
1790(정조14)	藍浦縣監	한강 舟橋 조성, 路梁船倉 石築 조성 규장각 봉심	
1791(정조15)		義陵 석물 개수, 어진 그럴 때 後排 간검 규장각 봉심	
1792(정조16)		현릉원 奉安閣 봉심, 규장각 봉심	
1793(정조17)		어진 移奉時 참여, 路梁行宮 修葺 水原府(華城) 城役所에 참여	
1794(정조18)		宙舍樓 修改, 華城 간역, 駕輻 조성	
1795(정조19)	稷山縣監 抱川縣監 龍仁縣令	華城城役으로 상 받음 整理儀軌廳에서 상 받음 永興本宮 祭器 조성, 규장각 봉심	
1796(정조20)	龍仁縣令	현릉원 간심, 齊陵 석물 수개	
1797(정조21)	龍仁縣令	현릉원 석물상대 왕에게 아뢰 규장각 봉심	
1798(정조22)		현릉원 석물 간심, 규장각 봉심	
1799(정조23)	龍仁縣令	迎接都監, 현릉원 봉안각 봉심	경기감사 용인현령의 업무태만 죄를 묻다
1800(순조원)	龍仁縣令	冠禮冊저 都監 간검 健陵 山陵 石役 간심	경기감사 용인현령의 應資 老人 淚報 죄 묻다
1801(순조1)	龍仁縣令	華寧殿 營建 간심, 규장각 봉심	
1802(순조2)		규장각 봉심 정조 위패 종묘에 부모할 때 간검	
1803(순조3)		창덕궁 晝香閣 봉심, 仁政殿 營建 참여	
1804(순조4)	沃溝縣監	건릉 개수	
1805(순조5)	積城縣監	殯殿都監, 건릉 改葺	
1806(순조6)	積城縣監	元陵 莎草修改	
1807(순조7)	積城縣監	康陵 陵上 石物修改	
1808(순조8)	高敞縣監	건릉 능상석물 개수, 景慕宮 望廟樓 봉심	
1809(순조9)		1월 옥에 간헐다가 병으로 풀려난 후 2월 사망	경기감행어사, 용인현령 재직시 軍保作桶 죄 묻다

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그 해 2월 16일에 정우태를 풀어주었다는 기사가 있다. 그 사유는 병이 깊어서였다고 한다. 그 6일 후인 2월 22일의 『일성록』에는 전용인현령 정우태의 죄명을 씻어주었다고 하면서 그의 죄를 조사해보니 6년 전의 일이어서 자세히 사정을 조사하기 어려워 고인의 생전 죄명을 씻어 준다고 하였다. 이미 정우태는 세상을 뜬 것이다. 당시 정우태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779년에 인숙원빈궁의 빈궁조성에 별간역 일을 시작한 이래 무려 30년이 지난 시점인 점을 생각하면 50을 훨씬 넘긴 나이였다고 짐작된다. 고령에 정월 흑한기를 맞아 옥에 갇혀 있다가 병을 얻어 석방이 되고나서 죄명을 벗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영조 이후 별간역의 출현과 그 역할

#### 3-1. 별간역의 출현

조선후기 왕릉 조성이나 빈전, 혼전의 운영 및 각종 건축 공사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별간역이라는 호칭이 18세기 초까지는 보이지 않다가 18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후에는 20세기 초까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기록은 의궤에 소상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그 밖에 『일성록』 『내각일력』에도 유사한 내용이 수록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표 2]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사이트의 문헌 검색 창에서 별간역으로 검색한 내용 가운데 출현연대가 앞선 것을 대상으로 별간역의 활동내용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해서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시대의 하한은 지면의 제약 등으로 정우태의 첫 출현사례까지로 한정하였다.

[표 2]에 의하면 별간역이라는 용례가 나타

나는 가장 이른 기록은 1749년(영조25) 『大報壇增修所儀軌』이다. 대보단을 증수하는 공역에서 折衝 李德觀이 별간역을 맡았다는 기사가 나타난다. 다음으로는 1751년의 『冊禮都監儀軌』이다. 의소세손의 受冊 행사를 기록한 이 의궤에는 도장을 만드는 일을 간역한 별간역으로 崔天若 등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후로 1779년까지 효순현빈 빈궁훈궁 조성, 인원왕후 국장, 정성왕후 국장, 영무원묘소 조성, 수은묘이건, 휘릉재실이건, 영조 국장, 문효세자 묘소조성, 인숙원빈궁 빈궁훈궁조성에서 별간역이 등장한다. 이들 사례를 통해서 별간역이라는 호칭이 1749년에 처음 쓰이기 시작해서 이후에는 주로 왕실의 묘소 조성이나 빈궁훈궁 조성, 국장 행사와 같은 공역에서 일반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별간역이라는 명칭은 看役 가운데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명칭의 유래는 [표 2]의 두 번째 사례인 의소세손 수책에서 별간역으로 불린 崔天若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천약은 1751년 의소세손 수책 시 옥도장 제작을 책임 맡으면서 별간역에 임명되었다.

최천약에 대해서는 그 보다 30여 년 전부터 기록에 나온다. 1718년 단의빈 『禮葬都監都廳儀軌』에는 최천약을 가리켜 ‘玉印造成人’이라고 칭했으며 1727년 진종효순후 『嘉禮都監儀軌』에서는 그가 옥인제작에서 ‘善刻印’이라고 하였다. 당시 옥도장에는 거북문양을 조각하는 일이 중요시되었으며 일반 玉匠들이 재능이 줄렬하여 모양을 이룰 수 없다고 하면서 최천약을 가리켜 도장을 새기는 데 뛰어나다고 한 것이다.<sup>8)</sup> 이후 1735년의 『玉印造成都

8) 최천약은 도장을 새기는 일뿐 아니고 각종 기계장치에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이름을 날렸다. 최천약의 행적에 대해서는 안대회, 『조선의 프로페셔널』(휴머니스트, 2007)에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다.

[표 2] 관영공사에서 초기의 별간역 출현사례

연대(묘호)	공사명	별간역			출전
		호칭	관직 성명	역할	
1749(영조25)	大報壇 增修	別看役	折衝 李德觀	대보단 壇上 감독	대보단증수소의궤
1751(영조27)	懿昭世孫 受冊	別看役人	前僉使 崔天若 前僉使 卞爾珍 前萬戶 金夏鼎 閑良 崔鎮崗	玉印 조성 간역	책례도감의궤
1751(영조27)	孝純賢嬪 殯宮魂宮 조성	別看役人	許沙僉使 卞爾珍 副司勇 房應文	조성 수리업무	빈궁훈궁도감의궤
1757(영조33)	仁元王后 國葬	別看役	許圭 浦項別將 卞爾珍	산릉표식 尺數見樣	국장도감의궤 산릉도감의궤
1757(영조33)	貞聖王后 國葬	別看役	浦項別將 卞爾珍, 前僉使 金夏鼎 외	정자각, 隨道閣, 甕家 간심	산릉도감의궤
1762(영조38)	永佑園 墓所 조성	別看役	所斤僉使 卞興瑞 摠戎廳哨官 曹允道 林遇春	정자각조성 및 石物彫琢 간검	묘소도감의궤
1764(영조40)	垂恩廟 이건	別看役	前僉使 崔鎮崗	미상	수은묘영건청의궤
1776(정조즉위)	徽陵齋室이건	別看役	前僉使 金命埏	재실이건 간심	일성록 4월27일
1776(정조즉위)	英祖 國葬	別看役	崇政 許圭	미상	
1786(정조10)	文孝世子 墓所조성	別看役	敎鍊官 柳惠根 前別將 鄭仁希	삼물소 및 부석소 별간역 조성소 별간역	묘소도감의궤
1779(정조3)	仁淑元嬪宮 殯宮魂宮 조성	別看役	閑良 丁遇泰 僉使 許圭 嘉儀 鄭東仁	빈궁, 훈궁조성	빈궁훈궁도감의궤

監都廳追補儀軌』에는 최천약을 가리켜 ‘玉印看役人’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최가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고 간역인임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1744년 『明陵改修都監儀軌』에서는 ‘董役令將’ 또는 ‘監役令將’이란 호칭이 부여되었으며 1745년 악기조성청의궤에는 ‘監董’이란 호칭이 쓰였다. 그러다가 1751년 의소세손수책시 『책례도감의궤』에서 ‘별간역’이란 호칭이 사용되었다. 최천약 이외에도 같은 1751년의 의소세손 수책 때 최천약과 함께 별간역을 맡은 卞爾珍의 경우에도 그 과정이 유사하다. 변이진 역시 옥도장을 새기는데 능한 사람이었으며<sup>9)</sup> 1749년(영조25) 대보단증수 때에는 ‘神座

神榻 造成人’으로 기록되다가 의소세손 수책 때부터 옥도장 별간역으로 불렸다.

최천약이나 변이진의 사례에서 볼 때 별간역이라는 호칭은 善刻印이나 玉印造成人처럼 특정한 기능에 정통한 사람을 가리키다가 그 역할이 점차 기술적인 부분을 감독하는 쪽으로 정착하면서 동역영장, 감동 등으로 불리다가 별간역으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에서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인

도감별단에 의하면 변이진은 옥인, 옥축 및 축책 看刻人으로 명시되며 1744년(영조20) 장조현경후의 『嘉禮都監儀軌』에서는 변이진을 가리켜 ‘옥도장의 거북문양과 몸체를 잘 새기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다.

9) 1736년(영조12) 장조 세자수책시 『冊禮都監儀軌』

1751년의 의소세손 수책과 효순현빈 빈궁훈궁 조성 공사에서는 ‘別看役人’이라는 칭호가 보인다. 아직 별간역이 하나의 직책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별간역을 맡은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뒤 1757년(영조33) 인원왕후 국장부터는 모든 호칭은 1749년 대보단 증수 때 쓰인 ‘別看役’으로 통일된다. 호칭이 별간역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한다.

18세기 중반에 관영공사에 나타나기 시작한 별간역은 19세기를 걸쳐 대한제국기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오히려 19세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산릉조성이나 건축물 수리공사에서 별간역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별간역이 하나의 공사조직으로 고정되어 간 측면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는 정우태 못지않게 장기간에 걸쳐 별간역으로 일한 경우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인물로 姜彝五를 들 수 있다. 강이오는 1826년(순조26)부터 1857년(철종8)까지 무려 31년간 별간역으로 각종 산릉공역이나 인정전 수리공사 등에 종사했다. 이 밖에 19세기에 별간역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사람으로 安時爨, 洪應燮, 姜潤 등이 있다. 안시혁은 1832년 규장각 閣臣이 그의 재능이 뛰어난 점을 들어 규장각건물을 봉심할 별간역으로 특별히 왕에게 주청을 올려 별간역이 된 인물이다. 안시혁은 이 해부터 1857년(철종8)까지 태묘의 중수를 비롯한 각종 공사에 강이오와 함께 별간역 활동을 했다. 홍응섭도 1831년(순조31) 서궐 영건 때 별간역을 맡았다는 기록을 볼 수 있으며 1848년(헌종14) 上號都監의 별간역에 이름이 오른다. 강운은 1857년(철종8)에 처음 별간역에 이름이 보이며 이후 1882년(고종19)까지 왕실의 중요 공사에 빠지지 않고 별간역에 이름이 올랐다. 강운은 1865년(고종2) 경북궁

중건 공사 때에도 다른 9명과 함께 별간역으로 활동하였다.<sup>10)</sup>

별간역은 19세기말의 관제개혁이나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여전히 산릉조성이나 빈전흔전도감 또는 건물수리 등에는 별간역이 임명되었다. 대한제국기 독립문 조성이나 배재학당 건립에 참여했던 沈宜碩도 별간역으로 공사에 참여 하였다.<sup>11)</sup>

관영공사에 별간역이 나타나는 마지막 사례는 1907년 8월에 있었던 헌종의 후궁인 慶嬪의 장례를 치른 행사였다. 이 행사에서 제실 회계심사관 劉應烈이 별간역을 맡았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료상에서는 별간역의 마지막 기록이다.<sup>12)</sup> 이후로 더 이상 별간역은 나오지 않는다. 이 달에는 이미 고종황제가 제위를 순종에게 넘겨주고 나라의 실권이 통감부로 넘어간 때였다.

별간역은 영조 연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대한제국이 존속한 1907년까지 각종 관영공사에서 존속한 직책이었으며 별간역을 맡은 사람 중에는 30년 가까운 오랜 기간에 걸쳐 활동한 사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2. 별간역의 신분과 역할

신분상으로 보면, 별간역을 맡은 인물은 대부분 무인출신으로 일반 장인과는 신분상 명확히 구분되는 존재였다고 판단된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일을 감독하는 역할이 주 임무였으며 그 신분은 처음부터 장인과는 달랐다. 최천약의 경우에도 최초기록인 1718년 단의빈 『예장도감도청의궤』에서 그의 신분은 ‘東萊

10) 경북궁 중건공사에 참여한 別看役은 李海準, 李海斗, 金載信, 孫興允, 金在洙, 金在衡, 林相賢, 金相友, 林鳳章이었다.(『日省錄』, 고종2년4월4일)

11) 심의석은 1904년 순종비였던 순명황후의 혼전 수개공역의 별간역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심의석은 내부기사로 있었다.(『日省錄』, 1904년 10월 8일)

12) 『日省錄』 융희1년 1907년 8월 23일

武人閑良'이었다. 즉 동래출신으로 한량 즉 아직 무과급제에 오르지 못하여 관직을 얻지 못한 무인이었다. 1721년의 『책례도감의궤』에서는 도감에서 왕에게 아뢰는 계사에서 한량 최천약이 '彫刻妙手'이며 옥도장 새기는 일은 '非匠手之類'에게 맡길 것을 청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sup>13)</sup> 이후 최천약은 간역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同知, 僉使 등의 하급무관직을 제수 받았으며 1744년에는 蛇渡津僉使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최천약 이외의 별간역으로 일한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 신분은 유사하였다. 즉, 초기에는 한량으로 지내다가 첨사나 별장, 초관 등 하급 무관이 되거나 유사한 관직을 갖고 별간역에 종사하였다.

한편 별간역으로 활동한 인물 가운데는 여러 차례 별간역에 종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 군현의 수령으로 나아가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별간역을 맡은 인물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고을수령이 된 첫 번째 사례는 丁遇泰이다. 정우태가 고을 수령이 된 것은 1789년 현릉원 천원공역에서 큰 공을 세워 왕이 그를 특별히 수령에 제수한데서 비롯되었다. 『일성록』에는 당시 그의 수령 제수에 대해서 '그가 수령이 되는 것이 불가하지만 임금의 특별한 전교가 있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sup>14)</sup> 정우태 이후에는 19세기에 와서 여러 명의 별간역이 수령이 되었는데 아마도 정우태의 전례를 따른 결과로 보인다. 19세기에 별간역 활동을 한 인물 가운데 현감 등에 임명된 대표적인 인물로 강이오, 안시혁, 홍응섭, 洪吉謨, 강윤, 姜健을 들 수 있다. 강이오는 1834년 함경도 利原

縣監에 오른 이후 光陽, 草溪縣監, 平山府使 등 지방 수령을 오래 지내서 정우태 못지않은 이력을 쌓았다. 안시혁은 1846년(헌종12) 興德縣監에 오른 이후 여러 곳의 현감을 지냈다. 이 밖에 홍응섭, 홍길모, 강윤, 강건 등도 대개 10년에서 20년간 별간역 활동을 했고 나중에 모두 현감에 올랐다. 한편, 별간역의 역할 역시 장인과는 구분되는 것이었으며 또한 일반 감독관과도 다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본방이 맡은 옥인과 죽책(세자비의 책봉문을 새긴 대나무로 만든 간책)은 일을 시작하고 여러 날이 되었으나 거북몸체를 새기는 일과 대를 짜는 일은 공장배에게 일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최천약, 변이진에게 일을 맡기고자하여 올라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하략)”(『가례도감의궤』, 1744)<sup>15)</sup>

“근래 도감에서 별간역을 연이어 두는바, 이번 사역도 호대하고 더욱이 隧道閣, 甕家의 제도는 근년에 창시한 것이 많아서 匠手를 붙여서 일을 하기는 불가합니다. 이에 변이진, 김극제, 방이문, 김하정을 가까운 예에 의해 별간역으로 임용하고자 하오니,--(하략)”(정성왕후 『산릉도감의궤』, 1757)<sup>16)</sup>

위 두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의 별간역은 일반 장인들에게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작업이나 색다른 일을 맡기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사례에서 보면 왕릉의 수도각이나 웅가가 근년에 창안한 부분이 많아서 이를 일반 장인이 일을 하기는 어렵고 별간역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별간역이란 일반

13) 員役工匠等, 亦爲分等書入, 而閑良崔天若, 素稱雕刻妙手, 故自前都監, 凡有雕役, 皆爲擔當矣, 今番玉印雕刻時, 亦當其役, 而以非匠手之類, 不得竝爲書入之意, 敢啓(『冊禮都監儀軌』 啓辭 9월27일)

14) 『日省錄』 정조13년 10월 13일 '別看役丁遇泰, 石物工役之精緻, 在古亦罕, 不可以守令, 承傳而止特爲加資'

15) 本房所掌玉印及竹冊, 始役已多日, 而龜體及編竹之際, 不可一任於工匠輩, 故崔天若卞爾振使之, 上來之意, 發關(莊祖獻敬后) 『嘉禮都監儀軌』, 3房, 稟目秩, 癸亥 11월14일)

16) 近來都監連有別看役, 而今番事役浩大, 且隧道閣甕家之制, 多有近年創始者, 不可只付之匠手, 故卞爾珍徐克梯房應文金夏鼎依近例, 欲以別看役任使(貞星王后) 『山陵都監儀軌』, 座目, 丁丑 3월16일)

적인 작업과는 다른 색다른 기술적 안목을 필요로 하는 일을 담당하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별간역은 일반 감독관과도 구분되는 존재였다. 조선시대 각종 국가 공역에는 감조관 또는 감역관, 영역부장, 패장이라는 호칭의 관리들이 공사를 감독하였다.<sup>17)</sup> 여기에 18세기 후반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간역 또는 별간역이라는 호칭이다. 이들 감독관과 별간역은 역할이 달랐다. 감독관은 맡은 영역을 정해놓고 공사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현장에서 장인들이나 인부들을 독려해서 일을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감독하였다. 이에 비해 별간역은 특정 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감독관과는 구분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단순한 감독관이 아니고 특정 부분에 대한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 임무로 삼았으며 그들 자신이 간단한 연장을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였다. 1776년(정조즉위년) 영조의 국장을 치르는 행사를 기록한 『국장도감도정의례』에 의하면 별간역에게 지급한 연장이 명시되어 있는데 ‘刀子 2개, 小釘 15개, 尔赤 1개’였다. 별간역은 단지 장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칼이나 정, 마치를 갖고 직접 작업을 한 것이다.<sup>18)</sup>

#### 4. 기술자로서 별간역 정우태의 활동

30년에 이르는 정우태의 별간역 활동 가운데

17) 영건의례의 공사감독관 조직을 보면 17세기에는 監造官, 領役部將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며(1633년 『昌慶宮修理所儀軌』, 1647년 『昌德宮修理都監儀軌』, 1694년 『慶德宮修理所儀軌』), 18세기에는 감조관 대신 監役官이라는 호칭이 보이고(1752년 『懿昭廟營建廳儀軌』, 1764년 『垂恩廟營建廳儀軌』), 19세기에는 새롭게 牌將이라는 호칭이 나타난다(1796년 『華城城役儀軌』, 1805년 『仁政殿營建都監儀軌』 등).

18) (英祖) 『國葬都監都廳儀軌』(1776, 정조즉위년),

데 특히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몇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는 왕릉을 조성할 때 석물 부분을 주관하는 일이다. 돌을 다듬는 일에서부터 석물의 조각, 배열 등을 책임 맡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능의 석물을 수리하는 일도 그의 역할이었다. 두 번째는 건축물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들이다. 중요한 건축공사에 별간역을 맡았으며 규장각을 비롯한 왕실 관련 시설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일도 그의 임무였다. 사용재료의 성능을 살펴보거나 건물의 시공상태를 살피는 일도 그가 맡았던 부분이다. 세 번째는 각종 기물의 고안이다. 轆轤를 새롭게 고안하거나 배다리 설치 및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 제작에 깊이 간여하였다.

정우태가 능의 석물공사를 주관한 첫 번째 일은 기록상으로는 현릉원 천봉 때였다. 현릉원 천봉을 준비할 때 왕은 도감의 제조에게 석물에 대한 일은 정우태에게 맡기면 족할 것이라고 말하여 그에 대한 각별한 신임을 나타냈다. 이것으로 미루어 정우태는 이미 돌공사와 관련해서 왕의 신뢰를 얻을 만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릉원 조성에서는 정우태는 長陵의 석물을 살펴보고 그 치수를 현릉원의 지세에 맞추어 약간 조정하여 만들어냈다. 파주에 있는 장릉은 仁祖와 비 仁烈王后를 모신 능으로 1731년(영조7)에 문산에서 파주로 천봉하면서 屏風石 문양을 종전의 구름무늬에서 목단과 연꽃으로 장식하여 새로운 면모를 지닌 곳이었다. 현릉원은 장릉을 모범으로 하면서 장릉에서 하지 않았던 瓦簷裳石도 설치하여 능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는데 이러한 일을 정우태가 전담한 것이다.

현릉원 천봉 이후 정우태는 1791년 義陵의 석물수개, 1796년 齊陵 석물수개, 1800년 健陵의 석물 조성, 1804년 建릉 석물수개, 1807년 康陵 석물개수 등 거의 대부분의 능 석물공역

에 참여하였다. 당시는 능의 석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거의 빠지지 않고 정우태를 불러 수개 공역을 맡겼다.

두 번째 건축물과 관련한 활동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화성축성이다. 정우태는 화성축성시 206일에 걸쳐 장안문, 서장대, 방화수류정, 낙남헌 조성에 별간역으로 일했다. 구체적으로 정우태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위 시설들이 화성에서는 각기 특징이 있는 건물들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특별히 별간역의 역할이 필요했던 부분에서 작업했다고 짐작된다. 장안문은 화성의 북쪽 정문이며 화성의 가장 돋보이는 다포식 건물이었다. 반원형의甕城이 있고 옹성에는五星池라는 방화수를 저장하는 시설이 있었던 색다른 건물이었다.<sup>19)</sup> 서장대는 상층 지붕이 하층 지붕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그 건물 형태가 독특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도 화성에서는 일반적인 목조건물과 다른 색다른 건물이다. 방화수류정 역시 十자형의 지붕을 갖춘 불규칙한 평면의 독특한 건물이며 낙남헌은 巖砌石緣이라는 색다른 기단을 갖춘 건물이다. 이처럼 정우태가 별간역을 맡았던 네 건물은 한결 같이 이전에 흔히 볼 수 없었던 건물형태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화성 축성이 시작될 즈음 남문과 북문의 성루와 남북 수문공사를 주관할 별간역은 前府使 梁塤, 前郡守 朴炯과 전현감<sup>20)</sup> 정우태 세 명이 임명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정우태 한 사람만 일을 맡았다.<sup>21)</sup> 뒤에 한량 金啓重이 별간역에 추가되어

화성축성에서 별간역을 맡은 사람은 정우태, 김계중 두 사람이었다. 김계중은 사료 상으로는 화성축성에서 처음 별간역에 이름이 나오고 신분도 한량에 머물러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정우태보다 지위나 경력에서 뒤떨어지는 인물이었다고 짐작된다.<sup>22)</sup> 이 점에서 정우태는 화성축성에서 별간역으로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화성 이외에도 정우태는 1801년 화령전 건립에 별간역을 맡아 상을 받았으며 1803년에는 화재로 소실된 인정전을 다시 짓는 공사에 역시 별간역으로 참여하였다.<sup>23)</sup> 인정전은 당시로는 왕실에서 짓는 가장 큰 규모의 다포식 건물이었다.

정조 재위 시 규장각은 역대 임금의 초상화나 글씨 등을 봉안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건물이 비가 새거나 습기가 차서 초상화에 손상을 입히는지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규장각이 세워지고 나서 정기적으로 건물의 상태를 살피는 봉심을 하였는데 이 일을 맡은 사람들도 별간역이라는 직함으로 불렸다.

21) 화성축성을 준비하던 1793년 12월 8일에 비변사에서는 도청과 별간역을 맡은 사람을 천거하였는데 별간역에는 전부사 양훈, 전군수 박형, 전현감 정우태 세 사람이었다. 그러나 『華城城役儀軌』 좌목조에 실린 명단에 보면 양훈은 별감동이 되고 박형은 결국 공사에 참여하지 않아 명단에 빠졌으며 정우태만이 별간으로 그대로 남았다. (『華城城役儀軌』, 권2, 계사, 계축 12월 8일)

22) 김계중은 화성축성에 처음 이름이 나오고 이후에는 주로 규장각 봉심을 맡았으며 1800년 건릉조성공사에서 별간역을 맡았다. 기록 상으로는 1803년 5월의 규장각 봉심이 그의 마지막 별간역 활동이었으며 직급은 하급무관인 절충이었다.

23) 정우태는 인정전 공역을 준비하던 계해년 12월 20일 경건도감 당상인 이만수가 그를 별간역에 차하할 것을 왕께 청하여 왕의 승낙을 얻어 별간역을 맡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갑인년 3월13일에 신병을 이유로 공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전현감 변세에게 별간역을 맡겼다. 그럼에도 공사가 끝나고 상을 주는 명단에는 변세와 함께 시상 명단에 올랐다. (『仁政殿營建都監儀軌』)

19) 팔달문은 장안문과 쌍벽을 이루는 남쪽 성문이었는데 공사일정을 보면 장안문이 먼저지어지고 나면 이 보다 일주일쯤 늦게 팔달문이 조성되었다. 공사일정으로 미루어 장안문은 성문 건축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 정우태는 1789년 현릉원 천봉공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듬해 남포현감에 임명되었다가 수원축성이 시작될 때에는 관직에서 불러나 있었다.

규장각 봉심에 대해서는 내각일력에 상세한 기록이 전하는데 규장각 봉심이 시작된 해는 1781년(정조5)부터이며 정우태는 초기부터 이 일을 맡았다. 정우태 외에도 정기적인 규장각 봉심에는 姜世重, 王漢楨, 洪得興, 김세중 등 5, 6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정우태 만큼 장기간에 걸쳐 봉심한 사람이 없으며 정우태는 죽기 1년 전인 1808년까지 거의 해를 거르지 않고 봉심에 임했다. 봉심 때는 어진이나 어서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건물에 습기가 차는 곳은 없는지 지붕이나 기둥 등 구조에 이상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필요할 때는 수리를 청하기도 하였다.<sup>24)</sup>

그는 건물 세부를 조성할 때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정조의 무덤인 건릉의 『산릉도감의궤』(1800년)에는 도감의 조성소에서 올린 품목 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보인다.

“별간역 정우태가 아뢴 바에 따르면, 정자 각과 배위청 및 월대 위는 방전을 깔고 나서 종횡으로 봉합해야 할 곳에 灰水에 松烟을 섞어 이를 흘려 부어 접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를 등록에 싣도록 분부하였거니와, 이는 대개 방전 위에 회수를 바르는 방법이 회와 전돌이 서로 잘 붙고 단단해져서 깨지지 않기 때문이며 화성 남용성에서 이미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역시에 쓰던 永興의 黑土가 아직 修城庫에 남아있다고 하오니 흑토가 있다면 송연을 회에 섞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흑토를 옮겨 가져와서 쓰는 것이 어떨런지요 하니 품한

24) 일례로, 1783년 5월 25일 규장각 봉심 내용을 보면, ‘주합루 동쪽 처마에 비 새는 곳이 한 곳이 있으며 봉도당 서북쪽 처마에 비 새는 곳이 두 곳이 있고 개유와, 서향각 등도 빗물이 스며드는 곳이 많습니다. 기와, 창호, 전돌 바닥 등 사이도 탈락되고 상한 곳이 많습니다. 이곳들은 날짜를 잡아 수개해야 할 것이며 수택제는 점점 기울어지고 있고 연못의 돌도 많이 탈락하였으니 이곳도 또한 한꺼번에 수축함이 어떨런지요’하는 의견을 내서 왕이 수리를 허락한 기사를 볼 수 있다.(『內閣日曆』, 정조7년 5월 25일 기사)

대로 수결하였다.”<sup>25)</sup>

이 기사에 의하면 정우태는 전돌을 접착시키는 작업과정에서 회물에 송연을 섞는 방법 대신 영흥에서 나는 흑토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그대로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영흥의 흑토가 과연 어떤 재료인지는 아직 잘 알 수 없지만 정우태는 화성 성역 때 별간역을 맡아 일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재료 사용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세워 이를 실천에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정우태의 기술적 활동은 기구의 제작과 고안이다. 현릉원 천봉 때 정우태는 별녹노를 고안했다고 한다. 별녹노는 기존에 사용하던 녹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 산릉조성 시 재궁 즉 임금의 시신을 안치한 관을 구덩이에 내릴 때 조선후기에는 일반적으로 녹노를 사용해 왔는데 정우태는 이를 약간 개조한 기구를 고안한 것이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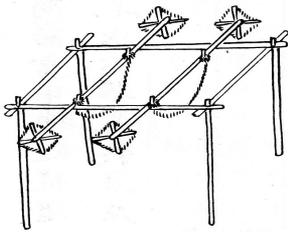
『현릉원원소도감의궤』, 도설조에는 일반 녹노와 정우태가 고안한 별녹노가 함께 실려 있다. 우선 일반 녹노를 보면 관을 안치할 곳에 네 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를 막대로 고정시킨 후에 막대 위에 다시 두 개의 긴 막대를 걸쳐고 막대 양끝에 물레를 설치한 모습이다. 실제 하관시에는 관에 연결된 끈을 물레에 감

25) 別看役丁遇泰所告, 丁字閣拜位廳及月臺上, 鋪方輓後, 以灰水和松煙, 灌注流塗於縱橫縫合處, 仍以此載之 瞻錄事分付教是乎, 所蓋, 此方輓上灰水, 施用之法, 專爲其灰與輓之性相襯合堅硬不破, 而華城南北甕城已施已驗之, 故也, 城役時所用永興黑土, 尙有遺在於修城庫云, 既有黑土, 則不必以松煙和灰, 同黑土隨所入移來入用何如, 手決依稟(『健陵山陵都監儀軌』, 造成所, 稟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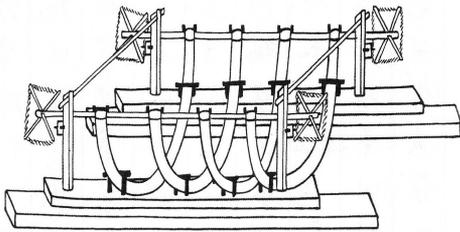
26) 정우태가 죽고 37년이 지난 1846년(헌종12)에 효명세자의 무덤인 수릉을 양주로 이장하는 일을 하면서 친히 정자까까지 나아가 왕은 별녹노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누가 처음 만든 것이냐고 묻자 곁에 있던 병조판서로 있던 朴岐壽가 답하기를 ‘이는 정우태가 고안해 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文祖綏陵』 『山陵都監儀軌』 傳教, 丙午 윤5월 19일 )

아 서서히 관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녹노의 모습이다.<sup>27)</sup>

한편 별녹노의 경우에는 물레를 설치한 막대의 위치를 더 안정되게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즉, 양끝에 물레를 설치한 막대를 기둥머리를 연결한 막대위에 걸치지 않고 짧은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쇠막대기를 걸쳐 기둥을 고정시키고 다시 직각 방향으로 쇠막대기를 끼운 후에 쇠막대기 양끝에 물레를 설치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녹노보다 하관시 더 흔들림 없이 관을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과 <그림 2>는 『현릉원원소도감의궤』 도설편에 실린 일반 녹노와 별녹노의 모습인데 별녹노는 기둥이 짧은 대신 물



<그림 1> 녹노  
(『현릉원원소도감의궤』, 도설)



<그림 2> 별녹노  
(『현릉원원소도감의궤』, 도설)

27) 하관시 녹노를 사용하는 것은 물레를 이용해서 관을 안정되게 내리기 위한 배려이다. 녹노는 왕실은 물론 사가에서도 널리 행해진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관시 녹노를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朱子家禮』에 언급되어 있으며 김장생이 편집한 『家禮輯覽圖說』에서도 녹노를 이용해서 하관하는데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레를 감은 쇠막대기가 안쪽으로 휘지 않도록 갈빗대모양의 네 개의 반원형 목재 버팀대를 설치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밖에 정우태는 각종 제사용 기물 제작에 간여하였다. 정우태는 1786년(정조10) 문효세자 혼궁에 사용할 제기를 주성할 때 별간역을 맡았으며 1794년 11월에는 이듬해 2월에 있을 혜경궁 홍씨의 화성 원행에 쓸 가교제작을 맡은 공로로 상을 받았고 1795년(정조19)에는 영흥본궁의 銀器를 비롯한 祭器 조성도 맡았다. 제기 조성 외에 남들이 쉽게 해내지 못한 공작에도 재능을 발휘하였는데 1789년 현릉원 천봉 시 사도세자의 관 뚜껑에 금으로 글씨를 써 넣는 작업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관 표면은 옷칠이 두껍게 되어 있어서 금 글씨가 쉽게 착색되지 않았던 것을 정우태가 생강즙을 섞은 물을 금 글씨 위에 입히고 탄불을 담은 질그릇 화로를 멀리서 쪼여서 글씨가 마르게 하여 일을 마쳤으며 왕은 금 글씨가 과연 칠 위에 잘 안착되었다고 일렀고 영의정도 매우 정밀하여 흠이 없다고 아뢰었다.<sup>28)</sup>

현릉원 천원을 무사히 마치고 원소 참배를 마치고 궁에 돌아온 왕은 대신들을 불러서 만나보는 자리에서 정우태를 특별히 거론하여 ‘百工의 공역을 능히 다룰 줄 알고 기예가 극히 정밀하다’고 평하였다.<sup>29)</sup> 며칠후 공역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시상하는 자리에서 정조는 정우태를 특별히 수령에 임하도록 하면서 그의 업적을 가리켜 ‘在古亦罕’ 즉 옛적에도 보기 드물다고 하였다.<sup>30)</sup>

정조는 정우태의 재주를 높이 평가해서 정

28) 이 공역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顯隆園園所都監儀軌』 연설조에 있다.

29) ‘予曰, 丁遇泰能執百工之役, 技藝極精矣’ 『日省錄』 정조13년 10월 10일

30) 『日省錄』 정조13년 10월 13일

조 재위 중에 있었던 각종 공역에는 반드시 정우태에게 별간역을 맡겼다. 1794년 3월, 시간을 관장하는 都摠府 漏局 건물에 비가 샌다는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왕은 세종조에 만든 물시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기구임을 말하면서 옛 문헌에는 12仙動 같은 儀器가 있으며 희정당 앞 자명종에 있는 물로 때려 빙빙돌게 만든 물건 역시 전해 내려오는 것임을 말하고 ‘이와 유사한 의기는 정우태 같은 자라면 능히 모양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sup>31)</sup>

『日得錄』에 의하면, 한강 노랑에 배다리를 설치하는 규범을 정한 「舟橋指南」 역시 기술적인 문제는 정우태가 담당하였다고 한다.<sup>32)</sup>

정우태의 30년에 걸친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볼 때 정우태는 비록 무관의 신분으로 현감이라는 직책을 오래 수행한 관료였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정통하고 그 자신이 시공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한 전문 기술자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석조물의 설계와 제작에 능하고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5. 정우태의 별간역 활동 평가

정조·순조연간에 30년에 걸쳐 각종 관영공사에 별간역으로 활동한 정우태는 조선후기 관영공사에 별간역이라는 제도가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조선후기 건축기술을 포함한 기술 전반의 성장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 『日省錄』 정조18년 3월 24일

32) 『弘濟全書』 167권, 日得錄7, 政事2에 의하면 ‘親授舟橋指南一篇, 有丁遇泰者, 有巧思, 掌其事’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정우태는 1776년(정조3)부터 1808년(선조8)까지 30년 동안 일관되게 별간역을 맡아 각종 관영공사에 종사하였다. 사료에서 확인한 바로는 별간역이라는 제도가 관영공사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1749년(영조25)이었으며 이후 20세기초에 이르기까지 별간역은 관영공사의 중요한 직책 중 하나였다. 조선후기 관영공사에서 별간역이 활동한 전 시기에서 보면 정우태가 별간역 활동을 한 시기는 비교적 초기에 해당한다. 즉, 최초의 별간역 기록이 나타나고 30년이 지나서 정우태의 이름이 나온다. 이후 정우태는 30년간 별간역으로 각종 공사에 참여하였다. 초기의 별간역 중에 정우태처럼 30년간 활동을 한 사례는 없다. 그런 점에서 정우태는 관영공사에서 별간역이라는 직책이 자리 잡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우태가 별간역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우태 자신의 타고난 기량이 바탕이 되었지만 그를 총애한 정조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정우태는 정조 초년에는 체기를 제작하거나 어진의 후배작업을 하는 등 초기의 다른 별간역과 일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현릉원 천원공사에서 석물공역을 도맡아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현릉원 천원 공사가 시작될 즈음에 왕은 직접 정우태를 지목해서 별간역에 맡겼으며 장릉을 둘러보도록 하고 현릉원의 모든 석물 공역을 그가 주관하도록 했다.

한편 정우태는 별간역에 종사한 인물가운데는 처음으로 지방 고을의 수령에 올랐다. 현릉원 천원공사가 끝나고 상을 주는 과정에서 하급무관이었던 정우태는 관례를 깨고 수령 자리에 올랐다. 이후에 19세기에 와서 강이오, 안시혁, 홍길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별간역을 맡으면서 지방 고을의 수령이 되었다. 정우

태의 사례는 하나의 전례가 되어 이후 다른 별간역이 수령에 오르는 길을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정우태는 조선후기 별간역 제도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틀을 세운 인물로 평가하여 무리가 없을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정우태는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특히 새로운 기술창안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정우태는 화성을 비롯해서 화령전 신축, 인정전 재건과 같은 왕실의 중요한 건축공사에서 별간역을 맡아 18세기말, 29세기 초 관영건축 공역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냈다. 화성축성에서는 장안문, 서장대, 방화수류정, 낙남헌 등 화성에서 독창성이 돋보이는 건물 조성에 참여하였다. 장안문은 화성을 상징하는 건물이며 반원형의 옹성과 옹성 위에 오성지를 갖추고 문루는 관영건물로는 18세기에 와서 거의 처음으로 건립되는 대규모 다포식 전각이었다. 인정전 역시 다포식의 전각으로 당시로는 가장 격식이 높은 궁궐의 정전이었다. 정우태는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 산릉의 조성이나 수리의 대부분에 참여하였다. 현릉원은 장릉을 본 받아 병풍석의 문양을 새롭게 하고 이전의 능에서 잘 쓰지 않던 와침상석을 설치하여 능제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정우태는 주로 능의 식물조성을 주관하였지만 정자각 월대의 전돌을 접착시키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별녹노는 정우태가 현릉원 공역을 위해 고안한 기구이다. 현릉원 공사에 사용된 별녹노는 그 상세한 제도가 『현릉원원소도감의궤』에 그림과 함께 수록될 만큼 당시로는 주목되는 기구였다고 짐작된다. 1846년(헌종12), 효명세자 무덤인 수릉을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綏陵山陵都監儀軌』에는 현장에 직접 나갔

던 왕이 별녹노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누가 별녹노를 처음 만들었는지 묻자 곁에 있던 병조판서가 ‘이는 정우태가 고안해 낸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는 기사가 있다.<sup>33)</sup> 이 때는 현릉원 공사가 있는 지 60년 가까이 지난 때이고 정우태가 죽은지도 37년이 지났지만 정우태의 이름은 그 때까지도 관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 별녹노는 이후에도 산릉공사에 자주 활용되고 하였는데 가장 마지막 시기에 속하는 사례로는 1911년 고종의 계비인 엄비의 묘소를 조성할 때, 1919년 고종황제의 산릉, 1926년 순종황제 산릉 조성 때 별녹노가 사용된 기록을 들 수 있다.<sup>34)</sup>

이러한 정우태의 기술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이 조선후기 건축기술을 비롯한 기술 전반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쉽지 않다. 정우태는 거의 평생을 별간역으로만 일했다. 별간역은 감독관도 아니고 장인도 아닌 중간적인 위치에서 주로 특정 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별간역을 맡는 인물들은 변장이나 초관 등 무관계통의 본직을 갖고 있었으며 정우태는 초기에는 변장에 제수되었다가 1790년부터는 충청도와 경기도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있었다. 수령으로 재직하면서 공사가 있을 때마다 별간역을 맡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정우태를 비롯한 별간역의 활동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정우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창안이나 고안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의 기술이 일반장인에게 전달되고 계승 발전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료에 나온 내용으로 볼 때 정우태

33) 『綏陵山陵都監儀軌』 筵說

34) 『純獻貴妃園所儀軌』(1911년), 『高宗太皇帝山陵主監儀軌』(1919년), 『純宗孝皇帝山陵主監儀軌』(1926년)

가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그가 일반 장인들을 거느리고 작업을 했다는 기사는 볼 수 없다. 물론 정우태가 모든 작업을 혼자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장인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일을 처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현감의 지위에 있었던 그가 장인들과 함께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정우태는 맡겨진 부분의 기술적인 해결을 하고나면 공사장을 떠났다고 생각되며 그의 기술이 장인들에게 전달되고 계승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는 정우태의 기술 활동은 그의 개인적인 작업의 범주에 머물렀으며 그것이 조선 후기 기술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별간역이라는 제도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6. 맺는 글

30년에 걸친 정우태의 별간역 활동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1779년부터 1789년까지 10년간으로 이 때는 정기적으로 규장각 건물상태를 살피고 보감이나 왕실 기물제작과 같은 일에 관여하다가 정조의 지시로 현릉원 천원공사의 석조물 공사를 주관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790년부터 정조가 승하한 1800년까지로 그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때이다. 여전히 왕릉의 석물공사를 주관했지만 화성성역에서는 장안문, 서장대, 방화수류정 등 주요한 건축물 시공에 간여했다. 이 시기 정우태는 남포현감을 시작으로 충청도와 경기도 여러 곳의 수령을 맡았다. 세 번째 시기는 1801년부터 1808년까지이다. 석물공역 외에 화령전의 신축, 인정전 증건공사에 별간역으로 활동하고 석물수리 및 기물제작에도 관여하였다.

별간역이라는 직책은 18세기 중반부터 관영공사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별간역을 맡은 사람들은 주로 무관계통의 관리신분이었으며 그 중 일부는 지방고을의 수령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수시로 공사 현장에 나아가 특정한 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를 책임 맡아 처리하였다. 그런 점에서 별간역은 감독관과 장인의 중간적인 성격의 존재라고 보았다. 별간역은 20세기 초 대한제국기까지 지속되었다. 주로 왕실의 무덤조성이나 건물수리, 제사에 쓰이는 기물의 제작 등을 주관하였다. 18세기 중반에 와서 별간역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이 시점에 와서 나타난 관공장의 쇠퇴와 노임제의 확산이 있었다고 보았다. 관공장이 줄어들어 장인 출신으로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장인들이 그때그때 임금에 의해 고용되는 체제가 자리잡아가면서 관영공사장에서는 왕실이나 관청에서 원하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졌으며 별간역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나온 직책이었다고 보았다.

정우태의 별간역 활동에서 특히 기술적으로 두드러진 점은 왕릉조성시 석물의 조각, 배열을 주도한 점이며 건축물 조성에서는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시설에 그가 간여한 점이 주목된다. 또 정우태는 바닥에 전돌을 깔 때 줄눈을 채우는 재료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술적 해결을 모색했다. 기존의 녹노를 변형시킨 별녹노라는 기구도 그가 고안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우태는 단순한 공사 감독이 아니고 실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내는데 성과를 이룬 기술자의 한 사람이었다고 정의내릴 수 있었다.

정우태는 별간역이라는 제도가 나타난 초기에 3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활동하면서 별간

역 제도가 정착하는데 기틀을 다졌다. 별간역으로 고을 수령이 된 것도 정우태가 처음이었으며 이후에 별간역을 맡은 사람들이 수령에 오를 수 있는 토대를 이루었다. 기술적으로도 정우태가 주관해서 조성한 현릉원은 후대 능제의 모범이 되었으며 그가 고안한 별녹노는 20세기초까지 널리 활용되었다. 건축공사에서도 정우태는 화성축성이나 인정전 영건 등 18세기말, 19세기초의 중요한 관영건축공사에 종사하였다. 그런 점에서 정우태의 별간역 활동은 조선후기 건축기술을 포함한 기술전반의 성장에 뚜렷한 공적을 남겼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별간역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성격의 직책이었으며 정우태를 비롯한 별간역을 맡은 사람들의 기술 활동이 일반 장인들에게 전수되거나 장인들에 의해 계승, 발전될 가능성에는 제약이 많았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별간역 제도는 조선후기 건축기술 나아가서는 기술전반이 안고 있었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日省錄
2. 內閣日曆
3. 顯隆園園所都監儀軌
4. 華城城役儀軌
5. 仁政殿營建都監儀軌
6. (莊祖世子受冊時)冊禮都監儀軌
7.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
8. (英祖)國葬都監都廳儀軌
9. (文祖)綏陵山陵都監儀軌
10.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 Special Technician Jeong Woo-tae's Activity and Role in the Governmental Construction Works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and King Sun-jo of the Joseon Dynasty

Kim, Dong-Uk  
(Kyonggi University)

## Abstract

Jeong Woo-tae(?-1809) was a military official who had worked as *Byeol-Gan-Yeok* in the governmental construction works during the late 18th century through the early 19th century. *Byel-Gan-Yeok*, literally a special technician, was an official post in the governmental construction works that carries specific technical tasks from the mid 18th century. Over 30 years, Jeong Woo-tae had devoted himself in the construction of various royal tombs, city walls, and palace buildings. He showed superb and various techniques in the works of stone carving and architectural details. After finishing the construction of the tomb of King Jeong-jo's father successfully, he was appointed as a governor of a rural town. Being on duty of the governor, he used to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works as a technician. He also made a couple of innovative device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like a carrying apparatus, *Byel-Nok-No*. His works secured the setting up of the post of *Byel-Gan-Yeok* in the governmental construction system in the 19th century. But his technical achievement remained as his own private works rather than developing to the universal growth of the craftsmen's skill. This might be a limitation of the *Byel-gan-Yeok's* role, whose position was remained in the midway between official and craftsman.

---

Keywords : construction supervisor, craftsman, technician, military official,  
building technique

---